

교환학생체험담

전효준(경북대학교, 한국)

대학생활의 목표 중 하나였던 교환학생을,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곳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어 실력도 부족하고 일본문화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차대에서 들은 유학생수업을 통해서 경어표현, 회화, 작문, 청해 등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일본어자격증공부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생 수업은 유학생회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수업은 어려웠지만 일본의 대학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문화교실을 통해 평소 경험한 적이 없던 이케바나, 가부키 교실 등에 참여 할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도쿄의 축제를 즐기거나 때로는 근교 여행을 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정원을 자주 산책했습니다. 모두 저에게 있어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차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환학생 홈룸(HR)이 1시간씩 있으며, 매주 振り返りシート를 써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학기말이 되면 모아서 다시 나눠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振り返りシート를 보면서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감상, 힘들었던 점, 열심히 했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한 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 감사하며 교환학생을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